

# AI반도체 등 차세대 R&D에 5000억 투입 ‘기술강국’

(7년간)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추진  
기업·대학·연구소 128곳 참여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초점  
미래차·바이오 등 5대 분야 중심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45개 세부 과제 수행 기관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래 유망 산업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자 수준의 미세공정 기술 등 반도체 신시장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45개 세부 과제 수행 기관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 종합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91개 기업과 29개 대학, 8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메모리 중심의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에 적용될 인공지능반도체(AI반도체) 상용화 등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467억원 등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국비 4277억원을 포함해 5216억원이 투입된다. AI반도체 상용화 등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과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용 장비·부품 개발에 나선다. 수요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요 특징인 미래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

T)가전, 로봇, 공공(에너지 포함) 등 미래 유망 5대 전략분야 기술개발이 중심이다.

분야별로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될 AI반도체 개발을 위해 올해 ‘자율주행차량용 주행 보조AI 반도체(NPU)’, ‘차량간 안전 거리 확보 등 안전운행 지원 칩’ 등 10개 과제에 93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휴먼코노미와 연관된 IoT가전용 AI반도체 기술개발에는 올해 ‘초저전력 경량 엣지 디바이스용 AI반도체’, ‘음성 인식 작동지원 스마트가전용 칩’ 등 8개 과제에 92억원을 지원한다.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 방역인 가정용 자가진단 키트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용 시스템반도체 개발도 추진, ‘혈액채취 없이 소아당뇨 감지가능 반도체’, ‘맥파측정용 영상처리 칩’ 등 4개 과제에 34억원이 투자된다.

로봇용 시스템반도체 개발 과제에는 ‘위치센서를 활용한 로봇 팔 제어 모터용 반도체’, ‘물류 이송 로봇용 거리 감지 반도체’ 등 2개 과제에 20억원이 지원된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수요와 연계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올해 ‘5G 기반 전자발찌용 반도체’, ‘지하 매설시설의 가스 누수 감지 칩’ 등 3개 과제에 33억원이 투입

된다.

AI반도체 등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제조의 핵심기술인 ‘원자 레벨 식각 장비 및 자동 검사 기술’, ‘중성자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출 기술’ 등 18개 과제에 174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사업 분야간 연계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일 사업단을 운영하고, 개발된 기술이 최종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수요 기업간 협력 플랫폼인 ‘얼라이언스2.0’을 통해 수요 연계를 강화한다. 또, 대기업의 양산라인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소재·장비를 검증하는 성능평가사업과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시스템반도체는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Big3) 중 하나”라며 “특히 AI반도체는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핵심부품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산·학·연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환경 위해 콘텐싱보일러 사용하세요”

경동나비엔-서울시-카드사 협력

경동나비엔이 서울시, 카드사와 함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콘텐싱보일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

경동나비엔 등 보일러 제조사는 서울시와 함께 콘텐싱보일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난방 시즌을 앞두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콘텐싱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4월 3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보일러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받으며 대기질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콘텐싱보일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을 통해 친환경 콘텐싱보일러를 구입하는 서울시민은 기존에 콘텐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던 20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카드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인 등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이용해 콘텐싱보일러를 구입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신규로 신한카드를 발급한 고객은 5만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해피콜, 플렉스팬 업고 상반기 매출 ‘好好’

총 20만대 판매 매출액 43억  
후라이팬+냄비 ‘다용도 활용’

해피콜이 연초 출시한 플렉스팬의 인기로 힘입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해갔다.

3일 해피콜에 따르면 1인 가구를 겨냥한 ‘플렉스팬 II’이 8월 말까지 20만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플렉스팬 가격은 2만1900원으로, 1~8월 사이 후라이팬 하나로 4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해피콜이 야심차게 선보인 플렉스팬은 후라이팬, 냄비 등 목적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cm의 크기와 1.2l의 용량으로 적은 양의 음식을 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플렉스팬만으로 다양한 조리할 수 있어 공간이 부족한 자취방 등에서 보관 공간을 줄여준다.



해피콜의 ‘플렉스 프라이팬’이 월평균 3만대를 판매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해피콜

이런 장점을 갖추고 있어 출시 후 두달만에 2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인기몰이를 예고했다.

플렉스팬의 이같은 인기는 해피콜의 매출에도 전반적으로 호자 노릇을 했다.

지난 4월의 경우 월 매출 기준으로 120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1월 이후 월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찍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거둔 1091억원 매출을 올해엔 뛰어넘어 반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직전년도의 경우엔 128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어 지난해 실적이 지난해 주춤했기 때문이다.

해피콜 관계자는 “해피콜은 올 상반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나름 좋은 매출을 거뒀다”면서 “플렉스팬의 높은 매출이 상반기 해피콜의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을 이어 해피콜은 플렉스팬을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해피콜의 대표적인 상품인 양면팬과 더불어 플렉스팬도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해피콜은 올 하반기 이후 주방 가전뿐 아니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가전들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

## AI 비대면 스마트진단 시스템 만든다

중진공, 연말 시범운영 목표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디지털 중심의 지원 방식 전환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비대면 스마트 진단 시스템을 개발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진단은 고객 참여형 기업진단 모델로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현재 수준 파악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업고객이 온라인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인원, 지적재산권 등 기업 현황 정보를 입력하면 중진공 내부 데이터와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역량에 대한 진단이 진행된다.

이후 관련 분야에서 유사한 규모를 가진 기업군과의 비교를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전략방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중진공은 기업고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진단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하고 올 12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스마트 진단 참여기업 동의를 바탕으로 진단 결과를 유관 공공기관 등과 공유해 정책지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반의 개방형 스마트 진단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 현장 방문 없이도 상시적으로 자가진단, 기업분석 및 신속한 진단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져 기업고객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 문화예술 창업 활성화 온라인 업무협약

창업진흥원-세종시문화재단

창업진흥원은 세종시문화재단과 문화예술분야 창업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일 온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분야의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창업상담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창업,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세종시문화재단 김종률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와 온라인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창진원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교류 ▲지원사업 홍보 연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

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발굴 등이다. /김승호 기자